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체제로

자사주 3300주 장내매수로 지분을 끌어올려 ... 분리경영 가속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자사주 3300주를 매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자사주 33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1월19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분리경영을 위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분리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9>